

## 영국 수낙(Sunak) 총리 선출 및 금융시장 반응

## 1 수낙(Sunak) 제57대 영국 총리로 선출

□ 수낙(Rishi Sunak) 前재무장관(만42세, 1980.5월생)이 오늘 오후 집권여당인 보수당 당대표에 선출됨에 따라 곧 영국의 제57대 총리에 취임할 예정\*

\* 집권여당 대표로 선출되면 다음 날 국왕의 임명 절차를 거쳐 총리로 취임하는 관행에 따라 10.25일(화) 오전 중 국왕 찰스 3세를 알현한 후 총리로 공식 취임할 것으로 예상

○ 지난 목요일(10.20일) 보수당 선거관리위원회(1922위원회)는 정국의 조기 안정,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직전 당대표 선출 시보다 경선 등록 요건을 강화\*함으로써 조기 총리 선출을 추진

\* 경선 후보 등록 요건을 당 소속 하원의원 20명 이상의 추천에서 100명 이상의 추천으로 강화. 이 경우 보수당의 하원의원 수(356명)를 감안할 때 최대 3명까지 출마 가능

○ 경선절차 발표 이후 일찌감치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수낙 前장관은 10.23일(일) 후보 등록을 마친 한편 보리스 존슨 前총리는 등록 요건 미달(50여 명 지지), 부정적 여론 등을 감안하여 불출마를 선언(10.23일)

○ 유력 후보 중 한 명이었던 모던트 하원의장도 등록 요건에 크게 미달(20여 명 지지)하면서 마감시한 직전(금일 오후 2시) 출마 포기하고 수낙 前장관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자, 선거관리위원회는 단일 후보인 수낙이 당대표(총리)로 선출되었음을 선언

□ 수낙 신임 총리는 재무장관 시절에 시행했던 일자리보전 대책 등 코로나 19 대응정책의 성공, 경선과정에서부터 트러스 前총리의 감세정책에 대해 꾸준히 비판한 점,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제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주장\*하면서 소속 의원들의 광범위한 지지\*\*를 얻음

\* 2015년 하원의원으로 정치 입문 전에 골드만 삭스, 헤지펀드(Theleme partners 등) 등 금융계에서 근무한 바 있음. 보리스 존슨 총리에 의해 2019.7월 재무부 수석 비서관으로 임명된 이후 2020.2월~2022.7월까지 재무장관을 역임

\*\* 10.24일 등록마감 시한 기준으로 수낙 신임 총리가 356명의 보수당 소속 하원의원의 과반수가 넘는 193명 이상의 지지를 얻음

- 지난번 경선에서는 당 소속 의원의 대폭적인 지지\*에도 불구하고 부인의 탈세 의혹, 본인의 이중국적(미국) 유지 논란, 존슨 전 총리에 대한 배신행위 등으로 당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 낙선

\* 소속 하원의원 최종 투표에서 수낙 신임 총리는 137표(1위), 트러스 前총리는 113표(2위)를 득표

- 인도계(힌두교도)인 수낙 신임 총리는 영국 역사상 최초로 非백인 아시아계 총리이며, 하원의원 당선 후 7년 만에 총리로 선출되면서 **의원 당선 후 최단기간**에 총리로 임명되는 기록을 세움

## 2 향후 정책 방향

- (정책추진력) 수낙 신임 총리는 경선 출마 선언(10.23일)에서 **영국**이 현재 **심각한 경제위기**에 처해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마한다고 밝힌 만큼\* 당장은 **정부 정책의 신뢰성 회복** 등에 **주력**할 것으로 판단

\* “The United Kingdom is a great country but **we face a profound economic crisis**. ... That’s why I am standing to be your next Prime Minister and Leader of the Conservative Party. I want to **fix our economy, united our Party and deliver for our country**. ...”

- 경선(contest) 없이 단일 후보로 선출되면서 보리스 존슨 총리 사임 이후 계속되었던 보수당의 내부 분열이 봉합되는 국면을 보임에 따라 **수낙 내각**이 **트러스 내각**보다 정책추진에 있어 **당내 지지를 보다 크게 받을 전망**

- (재정정책) 트러스 前총리의 감세정책 방향을 강하게 비판해온 만큼 트러스 내각에서 추진했던 **감세정책**은 **모두 원점에서 재검토**될 예정

- 유임이 유력한 **헨트 재무장관**은 차기 총리가 조기에 선출됨에 따라 새로운 재정정책 발표 예정일(10.31일)까지 **재정정책 방향 검토**를 위한 충분한 **시간**이 **확보**된 것으로 평가

-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**재정지출은 줄이되 세금인상 기조는 유지**하는 방향으로 재정정책이 운영될 가능성이 커짐

- (대외정책) 브렉시트와 관련해서는 수낙 신임 총리가 과거 브렉시트 지지를 통해 내각에 입성한 만큼 EU의 영향을 받은 현행 영국내 규정 및 북아일랜드 협정\*을 **영국에 보다 유리한 방향**으로 수정해 나갈 것으로 전망

\* 북아일랜드를 통해 아일랜드(EU가입국)로 넘어가는 영국 생산 물품에 대한 추가적인 통관절차 신설 등 추진

□ (불확실성 요인) 일부에서는 수낙 신임 총리가 앞으로 경제 및 재정 정책 방향, 총선 문제 등에 대한 **다양한 의견**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**강한 리더십**을 보여 주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

○ 스코틀랜드 스터전 총리는 수낙 총리 선출 직후 가진 인터뷰를 통해 다시 한번 **조기 총선의 필요성**을 강조\*하면서 재정정책이 긴축기조로 전환되면서 **공공서비스가 악화될 가능성**에 대한 **우려** 등을 표명

\* 수낙 신임 총리는 보수당 의원 앞 취임 연설을 통해 조기 총선 가능성을 일축. 반면 노동당, SNP 등 야당에서는 또다시 조기 총선이 필요하다고 주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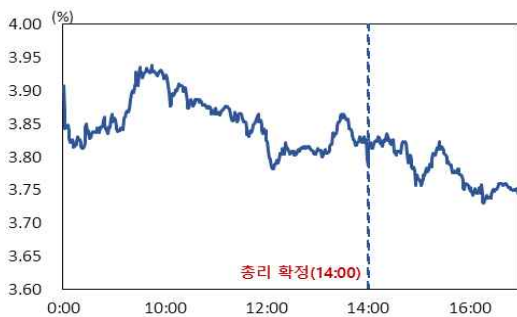
### 3 금융시장 반응

□ 영국 국채금리(10년물)는 금일 오전부터 수낙 前장관의 **총리 가능성**을 반영\*하여 **하락**하다 오후 들어 총리 **확정**발표 이후 **하락 폭을 확대**(런던 17:00시 기준 3.75%, 전일대비 -30bp)

○ 미달러 대비 **파운드화 환율**은 확정 직후 **강세를 보이다** 금일 영국 **경제지표의 시장 예상 하회\*** 등으로 소폭 **하락**(17:00시 기준 1.1292, 전일대비 -0.10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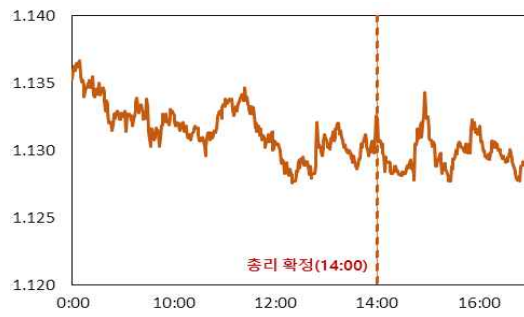
\* 영국 S&P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가 각각 45.8, 47.5(예상치 48.0, 49.0) 기록

영국 국채(10년물) 금리



자료 : 블룸버그

파운드화 환율(U\$/£)



자료 : 블룸버그

### 4 향후 금융시장 전망

□ 수낙 신임 총리가 **재정 긴축**을 통한 국가 신인도 제고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\*됨에 따라 최근 영국의 **재정위기 사태**는 일단락되겠지만, 시장의 **경기침체 우려**는 더 커질 가능성

\* 수낙은 재무장관 시절 팬데믹으로 확장된 정부부채 축소를 위해 증세 추진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한 바 있음

○ 헨트 재무장관은 국가부채 악화를 막기 위해 최근 트러스 감세안을 대부분 철회한 것 외에도 지출 축소 등 **추가적인 재정긴축**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\*(MS)

\* 일부 언론은 OBR이 헨트 재무장관에게 GDP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는 400억 파운드 가량의 추가 세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보도

□ 이와 같은 정부 재정정책의 **긴축전환 기대**로 **영란은행의 통화긴축기조**가 다소 **완화**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에 반영된 **최종금리 수준\***도 다소 **하락**

\* 선도금리시장에 반영된 영란은행 **최종 정책금리**는 **5.06%**(현 정책금리 대비 +281bp)로 전일(5.24%) 대비 18bp 하락

○ 트러스 前총리가 추진한 **통화정책 목표 재검토** 논의가 **없어지면서** 영란은행의 독립성\* 확보와 관련된 **통화정책 불확실성**도 **축소**될 것으로 보임

\* 수낙은 총리후보 캠페인 과정에서 통화정책 목표 재검토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

○ 다만 영국 **국채 시장금리**는 고인플레이션에 대응한 영란은행의 **긴축기조**가 **지속**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 향후 **국채매각 개시**(11.1일)에 따른 채권 수급 경계감이 상존하여 중기적으로는 **상승 압력이 우세**할 전망

□ **파운드화 환율**은 긴축재정 전환에 따른 **성장 둔화** 및 미 연준의 긴축기조 지속에 따른 **美 달러화 강세** 전망 등으로 **중장기적으로 약세**를 지속할 전망